

전남

장흥군 '번지점프' 설치 찬·반 논란

郡 "관광객 증가... 물축제 연계해 종합놀이형 시설로"

의회·주민 "재정자립도 취약, 지나친 전시행정일 뿐"

장흥군이 취약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번지점프' 설치사업

고루 갖춘 종합놀이형 점프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400만원을 들여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받아 이

난 1990년대부터 전국 유원지 등에서 붐이 조성하기 시작, 전국에 18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충북 제천의 '청풍랜드'와 경기도 가평의 '청평리

군은 번지점프는 주로 20~30대층 인 젊은 세대(커플점프)층이 날로 증가

그런데 군의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물축제 시너지효과 차원에서 번지

행정에 급급한 것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안구자 장흥군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7월 장흥과 제주를 오가는 '오렌지호' 취항으로 장흥을 찾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겨울맞이 특선메뉴 석화 개시합니다

최근 진도군 임하면 강계리 마을주민들이 석화(굴)구이 손질맛이 준비에 분주하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물회나 구이 등으로 많이 먹는 겨울철 별미다. <진도군 제공>

쌀 문제, 친환경농업이 대안이다

높은 소득·안정적 판로·생산장려금 등 기반 확보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이 쌀 문제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농업기술원의 유기농벼 소득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a(300평)당 생산량은 일반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기농 쌀 소매가격은 kg당 평균

1690억원에 달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2만3000여개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시·군 차원의 다양한 생산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예산은

1690억원에 달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2만3000여개 학교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벼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유형별로는 ▲저농약 ha당 21만7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유기재배 39만2000원의 친환경

또 시·군 차원의 다양한 생산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예산은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도농기원 문화해설사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7일 남도문화관광해설사 4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중요성 체험을 위한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흥 상선약수마을과 진도 운림예술훈, 강진 청자골 달마지마을, 보성예가 등지에서 도농놀이 등 옛 놀이문화와 청태전·녹차음식 등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은 남도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농촌 전통마을의 생활·문화·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해 농업·농촌의 이해증진을 물론 전남 문화관광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 녹색산업 발전 관·학·연 손잡았다

전남대 등 5개 기관과 MOU... 종자·에너지산업 등 연구

장흥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미래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관내 연구기관인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장흥군버섯연구소 등 5개 기관과 관·학·연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장흥군이 쌀을 비롯한 곡물 중심 농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 등 4개 기관은 장흥군의 농림어업의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종자산업과 식품산업,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 장흥군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개척과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5개 기관은 인력·장비 및 정보 등의 교류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장흥군은 연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희 장흥군수는 "관·학·연의 협력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장흥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한 모든 기관이 호혜적인 정신에 따라 서로 이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 양민 집단학살 60주기 합동위령제



함평 양민 집단학살 희생제(60주기 세미나 및 합동위령제)가 지난 6일 월야면 월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평군 등이 후원하고 유족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함평 양민집단학살 60주기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 이어 전통제례, 추모사, 위령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함평군사회생자 유족회 정근욱 회장은 "지난해 합동위령제에서 선언했던 화해와 용서를 떠올리며 이제는 화합을 위해 유족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함평 지역에서는 국군 11사단·빨치산 등에 의해 1167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화순군 '토지행정 이동민원실' 호응

이서면 등 10개마을 순회

화순군이 올해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마을 토지종합 이동민원실'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은 지난 6월과 11월 두차례 10일만에 걸쳐 북면·이서면 등 6개면 10개 마을을 순회하며 토지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군은 지적담당 및 토지관련업무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대한지적공사 화

순출장소, 법무사 등과 함께 합동 민원처리반을 편성했다.

올해 토지 이동민원실 운영결과 ▲공공용지 편입토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518필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토지관련·측량·등기·법률 등 613필지의 민원을 상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부에 닿는 현장민원 토지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민원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년 앞둔 공무원 수필가 등단 눈길

장흥 김창석 울산면장



장흥군 김창석(59) 울산면장이 정년을 앞두고 늦깎이 수필가로 등단해 화제다.

7일 장흥군과 장흥별곡문화동인회에 따르면 김 면장은 서울에서 간행되는 '한국작가 2010 겨울호'에서 수필부문 신인상에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신인작품 당선작인 '사소한 집념' 등 김 면장이 출품한 4편의 수필은 일일에서 접하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내려온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는 김씨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얽매며 글쓰는 취미를 크게 살리지 못했는데 최근 마음의 여유가 생겨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며 "글쓰기는 나의 힘이며 앞으로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 글이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입지)
건물(임대용,투자용)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GG경매 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상가주택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토지(전,답,임야,대지)
▶공장/창고